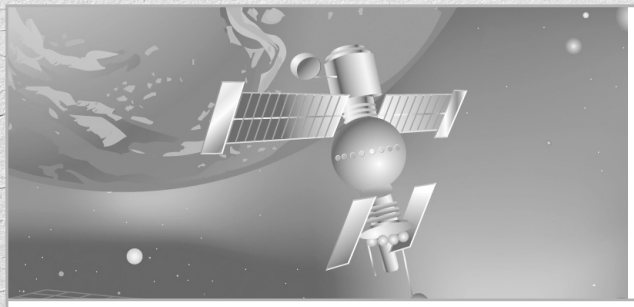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양계산물 안전성 문제 논란
합성항균제 엔로플록사신 내성 현저히 낮아

최근들면서 양계산물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육류에서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종종 등장하면서 양계업계에 적신호를 가져다주고 있다.

계란에서는 지난 7월중 시중에서 유통시킨 식란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에서 합성항균제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단체에서는 닭고기에서도 항생제의 일종인 엔로플록사신의 검출량이 잔류허용기준치 5배 이상 초과되었다는 내용도 보도되었다.

특히 최근 모 국회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총 41종 1천296개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3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중금속, 식중독균 등 각종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중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제품 61개 중에서는 10개에서 인체의 내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검출돼서는 안 되는 항생물질인 엔로플로사신이 0.011~0.1ppm 검출된 것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엔로플록사신은 양계농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합성 항균제이다. 엔로플록사신은 미국에서 닭 등 가금류에 대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잔류 허용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4년 소, 돼지에 대해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해온 이후 닭, 오리 등 양계산물에도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과거 10여년전에 국내 채란농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퀴놀론계열의 엔로플록사신이 이제는 내성이 떨어져 약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비해 가격이 1/10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의사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약제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휴약기간(14~15일)을 준수하고 생산된 식란은 폐기처분해야 할 것을 권장하면서도 가장 좋은 것은 굳이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항생제 대체물질을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사결과 잔류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게 되며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을 조사하고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지정기간 동안 2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출고보류 조치를 취한 후, 2배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 잔류물질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잔류물질검사에 따라 허용기준이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계농가들의 인식전환은 물론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계장 가금티푸스 확산추세 백세미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시급

종계장을 중심으로 가금티푸스가 확산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종계장내 가금티푸스 백신 사용은 지난해부터 공공연히 소문으로만 전해져 왔으나 본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18%에 달하는 종계장에서 가금티푸스에 대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가금티푸스 백신을 접종하는 농장도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70%에 달하는 종계장에서 가금티푸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허용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전국의 250여개 종계장중 설문에 응답한 160개 종계장을 대상으로 받은 이번 설문조사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종계장 DB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는데, 전화조사이기 때문에 다소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이미 종계장을 중심으로 가금티푸스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가금티푸스 백신은 현재 산란계를 제외한 닭에게는 접종이 금지되어 있어 종계장에서의 백신사용은 엄연히 불법행위이다. 또한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아니지만 백신사용으로 난계대 감염이 이루어질 경우 육계 병아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간단히 넘길 사항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 육계농장에서는 병아리 품질문제로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달 있었던 본회 종계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절반 이상을 할애할 정도로 큰 이슈중의 하나로 다루어졌는데 백신을 허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반면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었다. 백신을 하더라도 한시적인 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하며, 도입시 확실한 검증절차를 거쳐 백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백신을 허용할 경우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비를 충분히 지급하여 대책을 세우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살처분보상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4년 종계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수당 5천원이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종계인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종계인들은 가금티푸스 발생 원인을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기도 하였다. 백세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계인들은 1990년대 말부터 당시 불법병아리로 간주된 백세미에 대해 종계와 준하는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백세미에 대한 관리를 정부에 수차례 요구해 온 바 있다. 정부에서는 산업화라는 이유로 백세미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백세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계인, 정부, 연구계가 함께 모여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방안모색이 필요할 때라 보여진다.

2006년도 경기 불안 조짐
금년 육용 원종계 수입 큰 폭 증가 예상

내년도 육계시장에 적신호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정부지도 아래 업계 자율적으로 유지되어온 9만4천수 원종계 수입 쿼터제가 2005년부터 유명무실해 지면서 금년도 수입량이 큰 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올 상반기에 들어온 원종계는 6만2천수로 하반기에 6만5천수가 추가로 수입될 예정에 있어 총 12만7천수가 수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원종계사업 신규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 종계수급은 수요에 비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종계를 기준으로 추정한 잠재력에서도 금년에는 533만수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도에는 무려 624만수의 종계가 생산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 잠재력에 비해 17%나 증가한 수치이며, 종계 적정 사육수수인 500만수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원종계 수입 급증으로 2003년 6월에는 평균 육계산지 가격이 kg당 693원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육계가격이 생산비선 이하를 기록하면서 육계업계를 괴롭혔다.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육계수급불안으로 농가와 업계가 모든 피해를 입게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AI발생 이후 양계업계는 예상 밖의 호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에도 병아리 부족 사태가 나타나면서 육계 병아리 가격이 고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내년도 600만수대의 종계가 유지되더라도 종계장의 생산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오히려 병아리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병아리가격 상승 요인은 일부 질병피해의 원인도 있으나 여름의 혹서에 의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우(奇遇)에 불과한 변(辯)일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육계수급안정을 위해 원종계 수입이 적정선에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업계자율적으로 유지되어왔던 원종계 수입쿼터제로 인해 그간 육계산업은 안정적인 발전을 해왔다는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육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원종계 업계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양계